

냉정히 판단해볼 때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나 언제까지나 도입에만 의존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속히 종계를 개량하여 우량한 순계(Pure strain)를 확보하고 생산해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는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같이 연구하여 종계의 자급자족이 있는 날 진정한 축산발전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69년도부터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상의 감면의 혜택(개인 소득세는 69~75년까지 7개년 간은 100%감면, 76~78년까지 3개년간은 50% 감면해주며, 취득세, 재산세 등 법인세에 있어서도 69~78년까지 10개년 간은 100% 면세해준다는 조세 감면법이 공포됨)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더욱 분발하여

후진한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앞으로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류의 수요량을 양계산물로 대체공급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68년도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실적과 69년도 계획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년 도	물 량	금 액
68년	중 계 5,000수 산란계 331,882수	114,539,000원
69년	중 계 5,000수 (5,000수) 산란계 328,600수 (297,168수)	109,391,000원 (62,698,000원)

※ ()는 8월말 현재 실적

양계정책에 대한 제언



오 세 정

건국대학 축산대 교수

(一) 서 론

우리나라 양계업계는 최근에 와서 다른 축산 분야에 비하여 수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많은 향상 과발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이것은 정부에서 무축농(無畜農)을 유축화(有畜化)시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축산진흥 정책의 결과라고 하겠지만 양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악전 고투하는 노력의 소산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공과(功過)를 논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욱 건실하게 육성 발전 될 것이며,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국가경제가 부흥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견(愚見)을 기술하고자 한다.

국민의 생활이 영세하고 사회가 항상 불안하며 국가 경제가 빈약한데다 정부의 시책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일관성없는 행정시책으로 양계업자는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다고 하

였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면에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지 말고 또 수자적인 증대가 곧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지양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서 이것에 의거하여 과학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성있는 시책의 지포가 제시됨으로서 영세한 양축업자들은 계획성있는 사업을 추진할수 있고 자제와 조절을 하여 진실하게 육성된다고 본다.

(二) 육종개량 사업의 적극화 방안

우리나라 닭의 사육수는 약 30,000만수나 되며 산란수는 평균 125개에서 목표를 145개로 되어있고 육계(肉鷄)는 사료 요구율이 3:1(50일에 700g생산)에서 2.5:1(70일에 1.4kg) (농림부 축산진흥 계획서에서)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바 이러한 수치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으며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뒤떨어졌다고 본다.

근래 외국에서 도입되는 종계의 현황을 보면 1966년도 37,800수, 1967년도 135,000수 였던것이 1968년도에는 230,000수로 증가 되었고 이로 인한 외화의 소비는 약 50만\$ (68년도분)에 달 하였고 그 품종 또는 계통도 20여종이나 되고 이에 대한 항구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현재의 산란능력과 사료효율의 개선적인 면에서 귀중한 외화의 낭비 나아가서는 무질서한 계통의 도입으로 인한 업자간의 치열한 경쟁과 사육자들의 초생추 선발에 대한 혼란, 사육능력(환경과 사양관리 기술)의 불비로 과중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하여 지표를 세워 강력한 재정책 행정시책이 촉구되는 바이다.

1) 육종 개량 전문 위원회 기구설치

닭의 육종 개량 번식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직접 담당하게 하며 계획과 지침을 제시하고 외국계 도입에 대한 심의 검토와 추천권을 갖게 하며 개량사업을 하는 업체의 지시,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단기간에 큰 성과를 가져 오게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사계(斯界)의 전문 지식인(학계, 연구기관, 행정실무자 등)으로 구성하게 한다.

2) 민간 종계(種鷄)를 육성 강화시킬것

원종과 시설을 갖추어 육종 개량사업을 하는 업자에게는 그 소질과 성분을 검토한 다음 지정 종계장으로 선정하여 국고(國庫)에서 자금보조와 저리(低利)로 장기융자를 하여주는 동시에 외국계 도입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반면 육종사업의 철저를 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칙을 정하여 가하게 한다. 그리고 경제능력 검정결과 성적이 우수한 업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사기를 진작시킨다. 종계 개량사업을 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외국계를 도입하여 사육하는 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3) 국립 종축장과 도립 종축장을 강화

현재 국립 종축장이나 종계장의 실경을 살펴 보면 시설, 규모나, 생산 능력으로서 민간 종계에 비하여 못 하다는 것이 정평인데 이럴바에야 귀중한 국고를 왜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담당할 실무자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위정자의 인식부족과 시책의 잘못이라고 본다. 하루 속히 시설을 확장하고 육종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여건을 갖추어 경제성이 높은 우량품종이 작출(作出)되기 바란다. 외국에서 도입되는 종계는 일단 국립기관에서 능력 검정을 마친 뒤 공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무질서한 각양 각색 계통의 도입과 난립(亂立)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계통간에 교잡시험을 거쳐 2대(代), 3대(代)까지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4) 불실(不實) 부화장을 강력히 정비

종계도 없는 부화업자(아무 곳에서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입란하는 업자) 혈통도 알지 못하는 종계를 가지고 부화하는자) 나아가서는 비위생적이고 방역이 철저히 되어 있지 못하며 사양관리가 불량한 부화업자는 강력한 제재와 법적조치를 취하게 하고 교도(敎導)를 하여야 한다. 지방에서 일반 양계업자들에게 생산 능력의 저하로 큰 피해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적인 면에서도 국내 생산사료의 부족으로 막대한 량의 사료가 도입되고 있는바 사료효율의 저하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결과가된다

(三) 양계사료 대책에 대하여

국내사료의 절대량이 부족되어 매년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사료의 95%가 양계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도 입 량

년도	수 량	비 고	년 도	수 량	비 고
62	3,907	ton	66	5,000	\$
63	60,037		67	26,819	1,555,612
64	11,000		68	137,566	9,935,063 ⁹⁴
65	0		69.8.말	147,668	10,845,243 ⁹⁵
			69년도 계획	180,000	

이와같은 양이 매년 증대되어 도입되고 있는 바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다.

그렇다고 계란과 계육(鷄肉)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반성하여야 된다. 국가제정면에서 시급하고 과감한 정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1) 사료의 자급화 운동을 전개

곡류사료대신 고구마를 건조시켜 배합 또는 엔시레이지를 제조하여 자급하고 감자, 호박, 대맥, 아카시아잎, 칩잎, 크로바잎 등을 생산 증대시켜 농후사료의 자급도를 높이고 비타민 첨가제 대신, 록사료를 이용토록하는 조사 연구와 경제성분석을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과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외화의 절약은 물론 생산비를 절감할수 있다고 본다. 이들의 자급사료는 수분함량이 많으므로 건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공건조기의 도입 또는 제작이 선결문제가 될 것이다

2) 미 개발된 사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농산가공 부산물, 제조박, 양조부산물 등의 이용성을 증대케하며 사료적가치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사료의 품질관리와 손실을 방지

단미사료(單味飼料)의 품질규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양분의 손실을 막게하고 배합사료의 균형된 성분조성으로 효율성이 좋고 가장 경제적인 배합사료를 생산하게 할것 사료검사는 성분조사뿐 아니라 사양시험 제도를 실시할것 그리고 사료의 취급 운반, 저장, 급여, 할때 손실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것. 아마 약 10% 내의 손실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四) 양계업의 기계화와 계분(鷄糞)의 유효 처리를 위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급수, 급이, 계분(除糞), 채란등을 기계화시켜야 되며 계분의 효율적이용과 비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건조기를 국고에서 제작공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계분의 비료 손실은 물론 유실이 많은 것은 도시 근교에서 특히 많이 볼수 있다. 정부에서 비료공장의 건설에 치중 투자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계분은 유기질의 비료로서 자급사료와 다름없는 가치가 있으며 농산물의 맛을 개선하는데 더욱 효과가 크다.

(五) 생산물의 유통개선

계란과 계육의 위생적처리와 검사제를 실시하고 등급제로 판매케 하여 날개 혹은 마리당으로 가격 고시를 하지 말고 중량으로 거래케 하여야 한다. 신문 라디오 TV등에서도 중량으로 광고하도록 촉구하며 이에 따른 정부에서 규격과 규정을 통일 제정하기 바란다.

(六) 양계업의 공제제도(共濟制度)와 가격안정기금 설치

영세한 양계업자의 불의(不意)의 피해 또는 사고로 인한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하여 공제제도를 마련할 것이며 생산비이하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계란과 계육의 적정가격유지를 위한 안정기금을 마련하여 보상 또는 수급 조절을 할것

(七) 양계조합을 특·농조합으로 인정 할것

축종(畜種)이 다른 업자끼리 모인 시, 군마다 축협이 있는데 그 실태를 보면 기능과 활동이 복잡다단하고 실효가 적은바 축종별로 양계조합, 낙농조합, 양돈조합 등 집산지 또는 단지별로 구성시켜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축종이 다른 사람끼리 모이면 사업종목이 다르고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운영의 차질을 가져오는 실정인것 같다.

(八) 외국자본으로 운영되는 투자업체의 평가와 반성을 촉구

외국자본이 축산계에 투자된것은 오직 양계와 사료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에 투자계획과 사업승인에는 축산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생산물을 균납 또

는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게 한다는 목적하에 한·미합작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는 국제 정치적중요성도 내포하고 있겠지만 양계업자를 위하여서나 사료업자를 위하여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다고 기술지도를 얼마나 얻은것이 있으며 우리가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것을 쾌히 알으켜 주었는가? 국내업자가 생산하는 초생추의 질과 값도 같으며 사료는 어느면에서는 국내기술에 의하여 생산된것보다 못하며 값은 비싸다는 평도 나온다 그렇다고 현재 계란과 계육을 국남 또는 외국으로 수출의 길을 열어 주고 있는가?

사료수급에 차질이 있을때 서로 협조가 잘 되었는가?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들은 기술협력과 상표의 대가로 판매액의 3%를 가져가고 이익의 분담도 가져 가게 된다. 우리는 사대사상(事大思想)을 하루 속히 버려야 되겠다. 외국제품이라면 우선 믿고 좋아하는 생각을 버리고 민족적 이성을 되찾아 같은 질, 같은 값이면, 국내업자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 도리와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설사 국내업자의 것이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이용 개선하는 것이 의리인줄 안다. 그렇다고 외국인의 것을 무조건 배타(排他)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대사상을 버리고 민족의식을 높이 진작시키자는 것이다. 정부도 이들의 업체에 대하여 시초의 사업승인조건대로 수행하고 있나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와 책임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유치승인하여서는 아니될줄 안다.

(九) 양계진흥법 제정을 촉구함

양계업의 진실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계진흥법의 제정을 바란다. 즉 종계의 자질개량(資質改良) 방역대책과, 위생관리, 사료대책, 유통개선, 공제제도, 가격안정기금, 능력검정, 기술지도, 도계장규정, 세탄선별규정, 단지 조성촉진, 양계 조합법 등 양계업을 진흥시키는 규제와 규정을 법적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바라는 바이다.



우리가 바라는 양계정책

유 활

경기 부회장 사장

양계업의 발전을 바라볼 때, 그 발전상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그 발전을 훨씬 능가하였으며 본인은 그 발전을 평가할 때 너무 급속히 발전하여 오히려 퇴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마저 생기나, 이는 본인이 걱정하기 이전에 정책당국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여기 바라는 것은 보다 잘 되고, 또 굳건한 바탕을 가지는 양계발전을 바라는 뜻에서 몇 마디 피력해볼까 한다.

우리가 양계업의 발전을 돌이켜 볼 때 1964 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사료 및 종계문제의 원만한 해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여기서 우리양계업의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되고 있는 사료, 품종, 유통문제 등

을 들어 잘되는 양계업의 바람을 제 나름대로 적어보고자 한다.

1. 사료 문제

양계업의 발전이 사료의 원활한 공급과 동시에 발전되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사료의 원활한 공급이 양계업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안다.

현재 정책당국의 축산업의 모든 지원조치에 대하여 그 발전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으나 여기에 몇가지 우려되는 바 있지만 그것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① 사료의 적기도입 문제

매년 사료도입에 있어서 그 소요량이 닭 수와